

우리나라의 국내외 석유개발 현황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

1. 개 요

국내소요 석유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과동 이후 석유의 장기 안정적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외 석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래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편의연료 사용 증가로 국내의 석유 및 가스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부존자원의 지역적인 편재와 정치적 불안 등의 이유로 인하여 공급의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외적인 석유·가스 수급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대륙붕의 탐사와 아울러 해외석유개발사업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 국내대륙붕 개발

'60년대 후반 UN 극동경제위원회와 미국 해군해양연구소 등의 기초탐사 결과 국내 대륙붕에 석유부존 가능성이 제시됨에 따라 1970. 1월 대륙붕내 석유·가스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동년 5월에는 동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하여 약 30만km²의 대륙붕에 7개의 해저광구를 설정하고 본격적인 석유 탐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석유탐사는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70년대에는 우리 나라의 기술능력과 자금부족으로 주로 외국석유개발회사에 의존하여 탐사를 추진하여 왔으나, '80년대 이후부터는 기술과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외국의 석유회사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내대륙붕 탐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내대륙붕에 대한 탐사는 1970년부터 2000년 12월말까지 물리탐사 166천L-km와 시추탐사 34개 공을 실시하였으며, 동 탐사에 소요된 비용은 총 355백만불로서 이중 135백만불은 외국업체가 부담하였고, 국내부담은 220백만불이었다.

1997년까지의 탐사결과는 국내대륙붕의 개략적인 지질구조를 규명함과 아울러 3개의 대규모 퇴적분지(황해분지, 울릉분지, 제주분지)를 확인하였고, 제주분지에서 유·가스징후(5개공)를, 울릉분지에서 소규모 가스전을 발견한 바 있으나 개발경제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8년도에는 조사대상 지층을 달리 하여 제6-1광구 고래V구조를 시추한 결과, 국내 최대규모의 가스층을 발견하였으며 이의 매장량 평가와 추가매장량 확보를 위하여 1999. 3월~6월간 2개공의 평가정을 시추한 결과 1,700억~2,000억 입방피트(LNG 환산 340~

400만톤) 규모의 가채매장량 확인과 새로운 가스층을 발견하였으며 동 고래V구조의 가스매장량이 경제규모 이상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동가스전을 2000. 2월 「동해-1

국내대륙붕 탐사현황(2000년말 현재)

구분 단위	물리탐사(L-km)	시추(공)	투자액(천불)	비 고
I	6,477 (5,426)	1 (1)	8,977 (8,618)	· '91 시추
II	14,816 (7,443)	4 (-)	35,539 (14,862)	· '73 미Gulf 시추(2공) · '89, '91 미Marathon과 공동시추(2공)
III	8,193 (6,086)	- (-)	5,157 (4,665)	
IV	11,314 (4,072)	1 (-)	9,721 (2,491)	· '83 미 Zapex와 공동시추
V	11,995 (4,052)	4 (-)	26,894 (9,781)	· '72 미 Texaco시추 · '90 미 Hadson과 공동시추 · '91 영 Ultramar와 공동시추 · '93 영 Kirkland와 공동시추
VI-1	80,497 (75,304)	15 (14)	173,795 (166,200)	· '72 화란 Shell 시추(1공) · '87~'98 공사 시추(14공) - 가스발견 9공
VI-2	10,998 (5,668)	2 (-)	13,776 (4,324)	· '75 화란 Shell 시추 (2공) - 석유징후 1공, 석유·가스징후 1공
한일공동	19,571 (-)	7 (-)	79,401 (7,306)	· '79~'84 미 Texaco시추(2공) · '79~'85 KOAM 시추(4공) · '86 한·일 공동시추 (1공) - 가스징후 2공, 석유·가스징후 1공
기타지역	2,585 (2,585)	- (-)	1,421 (1,421)	
계	166,446 (110,636)	34 (15)	354,681 (219,668)	· 시추 34개공중 - 가스발견 9공, 석유·가스징후 5공

주 : ()내는 국내의 탐사 및 투자실적

가스전」으로 명명하고 개발선언식을 가졌으며, 2000. 2월~8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1. 3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후 2001. 3월부터 실시설계와 시공을 하여 2003. 6월부터는 가스생산을 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대륙붕 탐사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탐사를 실시하고 외국 합작선을 유치하여 국내 대륙붕 개발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3. 해외석유개발

해외석유개발사업은 '70년대 2차례에 걸친 석유 위기와 경제성장에 따른 석유소비증가로 원유의 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소모원유의 안정적인 확보 차원에서 해외석유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81년부터 시작하여 2000년말까지 석유공사, SK, LG 등 국내 26개 기업에서 예멘, 페루, 영국, 베트남, 인니, 알제리 등 36개국 98개 사업에 진출하여 이중 23개국에서 53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7개국 45개 사업은 사업성 결여 등으로 종료하게 되었다.

2000년도에 우리 나라 해외석유개발 업계는 가나 CTP 등 5개 사업을 종료하고, 베트남 16-2, 미얀마 A-1, 브라질 BM-C-8, 페루 Camisea 등 4개 광구에 신규로 참여하였다.

해외진출사업 진행 및 종료 현황

구 분	81~99년	2000년	계
진행사업	54 (22개국)	△ 8(5)/7(7)	53 (23개국)
- 생산	16 (11개국)	- /3(3)	19 (12개국)
- 개발	5 (5개국)	△2(2)/1(1)	4 (4개국)
- 탐사	33 (17개국)	△6(3)/3(3)	30 (17개국)
종료사업	40 (25개국)	- /5(3)	45 (27개국)
계	94 (36개국)	4	98 (36개국)

* 감소/증가, ()는 진출국

2000년말 현재 투자실적은 총투자액 3,207백만달러, 투자회수액 2,509백만달러로 총투자비의 78.2%가 회수되었으며, 총투자액 중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에 의한 정부지원액이 718백만달러, 업체자체조달금액이 2,489백만달러로 정부지원이 22.4%를 차지한다.

2000년말 우리가 해외에서 확보한 가체매장량은 916백만배럴로 2000년 원유도입량 894백만 배럴의 102%로 국내소비의 373일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0년말까지 자주개발 원유량은 총 146백만 배럴이며, 이중 2000년말까지 생산량은 14.5백만 배럴로 2000년도 원유소비량의 약 1.95%가 우리가 개발한 원유로 공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 및 민간기업 투자 현황

(단위 : 천달러)

구 분	~ 96	'97	'98	'99	'00	계
석유공사	220,576	274,396	117,726	99,021	155,245	866,964
- 에특용자	148,414	14,202	33,509	35,043	70,776	301,944
민 간 사	1,503,621	308,378	185,909	161,955	179,829	2,339,692
- 에특용자	288,659	48,809	28,572	36,189	13,618	415,847
합 계	1,724,197	582,774	303,635	260,976	335,075	3,206,657
- 에특용자	437,073	63,011	62,081	71,232	84,394	717,791

광구별 확보 가채매장량

(단위 : 천배럴)

구 분	광구 전체			국 내 사		
	원 유	가 스	계	원 유	가 스	계
인니 서마두라	15,000	14,164	29,164	3,750	3,541	7,291
예멘 마리브	122,764	-	122,764	30,077	-	30,077
아르헨 팔마라르고	4,904	-	4,904	687	-	687
이집트 자파라나	12,000	-	12,000	3,000	-	3,000
페 루 8	88,798	-	88,798	35,519	-	35,519
영국 캡틴	249,338	-	249,338	37,401	-	37,401
아르헨 엘비날라르	7,400	-	7,400	7,400	-	7,400
오만 부카	3,857	2,146	6,003	1,929	1,073	3,002
코트디부아르 CI-11	7,839	36,748	44,587	968	4,538	5,506
볼리비아 팔마	2,700	16,667	19,367	2,700	16,667	19,367
미국 Kohler	2,900	-	2,900	1,421	-	1,421
미국 Maurbro	700	-	700	316	-	316
미국 Trinity	1,500	-	1,500	735	-	735
미국 Iberia	500	-	500	180	-	180
미국 Port Barre	700	-	700	420	-	420
카타르 Ras Laffan	255,240	1,277,280	1,532,520	12,762	63,864	76,626
인니 폴링	11,000	16,110	27,110	5,500	8,055	13,555
미국 Maddox	-	3,567	3,567	-	1,248	1,248
알제리 이사우에네	18,900	-	18,900	5,670	-	5,670
마리브 가스전	-	1,861,000	1,861,000	-	248,983	248,983
베네수엘라 Onado	88,931	-	88,931	9,605	-	9,605
베트남 11-2	-	157,100	157,100	-	86,405	86,405
리비아 NC174	664,000	-	664,000	77,464	-	77,464
페루 Camisea	587,000	1,450,000	2,037,000	70,440	174,000	244,440
총 계	1,558,971	4,834,782	6,980,753	307,944	608,374	916,318

주 : 원유로 환산한 가스매장량 포함

자주개발원유 확보현황

(단위 : 천배럴)

구 분	'97	'98	'99	'00
확보가채매장량(백만배럴)	482	581	847	916
국내원유수입량 ^㉔	873,415	819,094	874,090	893,707
- 연평균 (천배럴/일)	2,393	2,244	2,395	2,449
자주개발원유 ^㉕	13,369	15,164	14,589	17,391
자주개발률 ^㉖ / ^㉗	1.53	1.85	1.67	1.95

광구별 생산 현황

(단위 : 천배럴, 가스 : LNG천톤)

광 구 명	84 ~ 99			2000			누 계		
	Oil	Gas	계	Oil	Gas	계	Oil	Gas	계
인 니 서마두라	843,910	339	7,497	189	20	357	4,099	359	7,854
폴 랭	-	-	-	820	103	1,682	820	103	1,682
에 멘 마 리 브	72,743	-	72,743	3,583	-	3,583	76,326	-	76,326
이집트 칼타(종료)	2,786	-	2,786	-	-	-	2,786	-	2,786
자파라나	3,205	-	3,205	375	-	375	3,580	-	3,580
아르헨 필마라르고	2,189	-	2,189	221	-	221	2,410	-	2,410
엘비날라르	223	-	223	55	-	55	278	-	278
페 루 8	14,790	-	14,790	3,733	-	3,733	18,523	-	18,523
영 국 캡 틴	6,920	-	6,920	2,469	-	2,469	9,389	-	9,389
코트디브 CI-11	2,395	-	2,395	514	-	514	2,909	-	2,909
오 만 부카(LPG)	1,701	62	2,198	413	18	556	2,114	80	2,754
볼리비아 팔 마	80	-	80	-	-	-	80	-	80
알제리 이싸우에네	-	-	-	673	-	673	673	-	673
카타르Ras Laffan	-	-	-	538	235	2,653	538	235	2,653
미 국 Kohler	111	-	111	19	-	19	130	-	130
Maubro	206	-	206	61	-	61	267	-	267
Trinity	37	-	37	11	-	11	48	-	48
Iberia	214	-	214	56	-	56	270	-	270
Port Barre	79	-	79	17	-	17	96	-	96
Maddox	-	-	-	-	43	356	-	43	456
합 계	111,589	401	115,673	13,747	419	17,391	125,336	820	133,064

향후 우리 나라 해외석유개발업계는 2010년 자주개발원유 확보율 10% 달성을 목표로 해외석유개발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효율적인 조달방안을 여러 각도로 강구하여 유망한 생산광구의 매입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이미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탐사광구의 탐사 및 시추활동을 꾸준히

추진하여 성공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고, 아울러 우리 업계가 좀더 강한 의지와 투지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는 자세로 컨소시엄 구성 등 당면과제를 풀어나가는 사업 분위기의 조성도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정부는 그 동안 해외석유개발사업을

해외석유개발사업 세부 현황

(단위 : 천불, 2000년말 기준, *는 한국이 운영권자)

구 분	광 구 명	사업허가	지분비율(%)		투자액
			한국측	참 여 사	
생 산 사 업	에멘 마리브	84. 3.28	24.5	SK15.925, 삼환 3.675, 현대, 석유공사 각 2.45	668,741
	인니 서마두라*	81. 5.15	25	코데코25	323,415
	이집트 자파라나	89. 5.31	25	SK25	66,733
	아르헨티나 팔마라르고	92.12.10	14	동원8.4, 석유공사, 고합, 동국, 한보 각1.4	37,396
	페루 8	96. 6.26	40	석유공사20, 대우11%, SK8%	365,460
	영국북해 Captain	95.12.23	15	석유공사13.5, 인천정유1.5	489,746
	코트디부아르 CI-11	97. 1.31	12.35	SK12.35	61,811
	오만 부카	97. 2.24	50	LG상사30, 금호10, 효성10	53,891
	미국 Kohler	97. 6. 3	49	SK49	8,025
	미국 Maurbro	97. 6. 3	45.1	SK45.1	7,582
	미국 Trinity	97. 6. 3	45.1	SK49	5,266
	미국 Iberia	97. 6. 3	36	SK36	11,442
	미국 Port Barre	97. 6. 3	60	SK60	3,909
	아르헨티나* 엘 비날라르	96.10.18	100	동원100	8,012
	볼리비아* 팔마	97. 2.12	100	동원100	3,000
	카타르 Ras Laffan	99.11.30	5	가스공3, 삼성0.5, 현대0.4, SK, LG, 대성, 한화1.1	36,900
	인도네시아 플렝*	94. 4. 6	50	코데코 50	59,873
	알제리 이사우엔	92. 2.11	30	삼성20, 한화10	54,136
미국 오클라호마 Maddox가스전	95. 2.16	35	대성 35	11,660	
소 계	13개국 19개사업		18개업체		2,276,998
개 발 사 업	에멘마리브(가스전)	97. 2.17	13.38	SK6.05, 삼환1.4, 현대5, 석유공사 0.93	25,814
	베네수엘라 오나도	97. 8. 2	10.8	석유공사10.8	20,117
	리비아 NC174	91. 1.29	33%	석유공사, SK, 현대 각8%, 마주코5, 대성3%	66,193
	페루 Camesea	00. 11.	12	SK12	12,533
소 계	4개국 4개 사업		6개업체		124,657

육성 발전시키고자 지금까지 다져온 석유개발지원체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업계의 자금난 해결에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예산의 증액과 아울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해외석유개발사업 세부 현황

(단위 : 천불, 2000년말 기준, *는 한국이 운영권자)

구 분	광 구 명	사업허가	지분비율(%)		투 자 액
			한국측	참 여 사	
탐 사 사 업	베트남 11-2 *	92. 8.14	55	석유공사2.5, 대우, 대성, LG, 삼환, 현대 각6.5, 쌍용6, 삼성4	73,652
	페루 67	96. 1.22	30	석유공사20, 현대 10	15,476
	에콰도르 block-11	95. 2.16	35	석유공사14, SK 21	15,575
	알제리 부라레*	95. 3. 8	100	석유공사44.4, 대우44.4, 삼성11.2	17,826
	앙골라 2-92	93. 3. 4	25	대우18.75, 석유공사6.25	57,696
	영국 T36	97. 7.24	15	석유공사15	560
	인니 삼비도용*	97. 9.25	50	석유공사50	10,787
	인니 워캄 *	97.12. 4	100	석유공사100	2,349
	베트남 15-1 *	98. 8.20	23.25	석유공사14.25, SK 9	18,968
	중국 옌난	97. 4.18	70	삼성70	3,480
	베트남 16-2	00. 5.15	30	석유공사30	9,338
	볼리비아 * 팔마델오라포르리오	97. 2.12	100	동원100	30,670
	볼리비아바냐도스	98. 3.16	100	동원100	15,150
	리비아 NC184	96. 6.21	10	SK10	1,580
	리비아 NC185	96. 6.21	10	SK10	1,139
	호주 AC/P-15	96. 6.21	10	SK10	1,339
	미국 Miscellaneou	96. 5. 2	50	대성50	1,367
	인니 방코	95. 7.24	25	SK25	4,529
	코트디브아르CI-01	95.10. 2	15	SK15	6,233
	코트디브아르CI-02	95.10. 2	15	SK15	2,033
	적도기니 C	95.10. 2	9.4	SK9.4	1,231
	적도기니 D	95.10. 2	25	SK25	12,248
	아르헨티나 산타빅토리아	94. 3. 3	45	동원45	15,147
	미국North Ibex	96.10.18	50	대성50	2,441
	수리남 해상	99. 8. 24	15	석유공사15	720
	호주 WA276P	98.11. 6	10	SK10	669
	호주 WA277P	98.11. 6	10	SK10	526
	호주 WA278P	98.11. 6	10	SK10	1,062
	미얀마 A-1	00. 8	100	대우100	334
	브라질 BMC-8	00. 8	40	SK 40	2,799
소 계	18개국 30개사업		10개업체	326,924	
총 계	23개국 53개사업		21개업체	2,728,579	

국별 참여 현황

진출국	진행사업		종료사업		계		비고
	사업수	업체수	사업수	업체수	사업수	업체수	
인니	5	3	4	5	9	7	코데코,남방개발,SK,LG,석유공,대우,인천정유
예멘	2	4	-	-	2	4	SK,삼환,현대상사,석유공
이집트	1	1	1	4	2	5	삼성,현대정유,LG,석유공,SK
아르헨	3	5	2	1	5	5	동원,석유공,고합,동국,한보
페루	3	4	2	3	5	4	석유공,대우,SK,현대중
영국	2	2	-	-	2	2	석유공,인천정유
말연	-	-	2	5	2	5	삼성,SK,석유공,LG,현대
미국	8	2	6	6	14	8	대성,현대,대신,쌍용정유,LG, LG정유,석유공,SK
리비아	3	6	1	3	4	8	석유공,대우,현대,마주코,대성,SK, 현대정유,LG
알제리	2	5	-	-	2	5	삼성,인천정유,석유공,대우,한보
PNG	-	-	3	4	3	4	한라,SK,현대,LG
베트남	3	8	-	-	3	8	석유공,대우,대성,삼환,현대,쌍용,삼성,LG
앙골라	1	2	-	-	1	2	대우,석유공
에콰도르	1	2	2	1	3	3	SK,석유공,인천정유
코트디부	3	1	1	-	4	1	SK
적도기니	2	1	1	2	3	2	SK,선경
호주	4	1	4	7	8	8	SK,현대,석유공,대성,대우,마주코,LG,인천정유
모리타니	-	-	1	1	1	1	SK
브라질	1	1	1	1	2	1	SK
수단	-	-	1	1	1	1	SK
가봉	-	-	1	1	1	1	SK
콜롬비아	-	-	1	2	1	2	삼성,LG
가이아나	-	-	1	2	1	2	SK,선경
UAE	-	-	1	4	1	4	SK,현대,석유공,LG
미얀마	1	1	1	2	2	3	SK,선경
시리아	-	-	1	1	1	1	SK
요르단	-	-	1	1	1	1	한보
중국	1	1	2	7	3	8	석유공,SK,대우,삼환,현대중,고합,LG,삼성
벨리즈	-	-	1	2	1	2	석유공,LG
오만	1	3	-	-	1	3	LG,금호석유,효성
볼리비아	3	1	-	-	3	1	동원
가나	-	-	1	1	1	1	SK
카메룬	-	-	1	1	1	1	석유공
베네수엘라	1	1	1	1	2	1	석유공,현대중
수리남	1	1	-	-	1	1	석유공
카타르	1	7	-	-	1	7	가스공,삼성,현대,SK,LG,대성,(주)한화
계	53	21	45	21	98	2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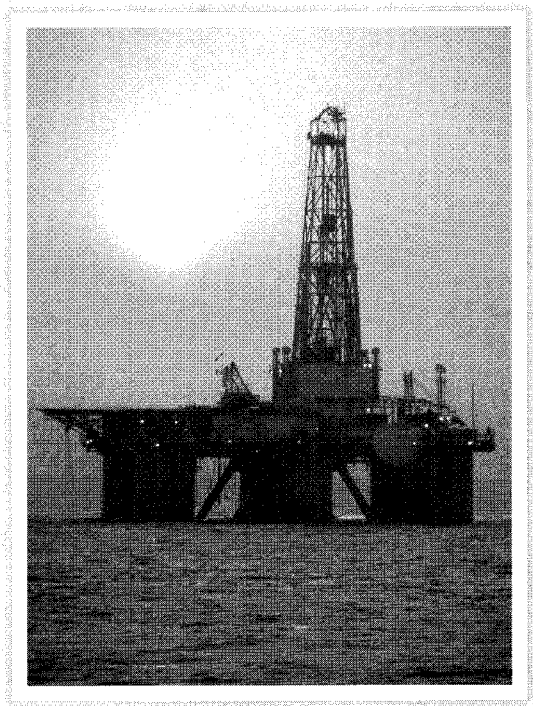
4.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석유개발사업은 성공률이 세계 평균 2~5%로서 낮은 반면, 탐사사업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투자 회임기간이 6~10년으로 장기적이며 고도의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이지만 사업 성공시에는 대단히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다.

2차 석유파동 이후에도 국내기업은 석유탐사·개발부문의 기술축적이 거의 없고 자기자본 조달능력이 매우 취약하였으므로 정책적인 투자유인과 금융지원 없이는 석유개발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우리업체의 해외석유개발 진출 대상국은 대한민국과 국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와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로 한정하도록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어 미수교국 내의 석유개발 사업에 진출을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여 우리나라 업체가 미수교국에도 석유개발사업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진출국 제한의 조항을 철폐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으로 개정('97.8.22)을 한 바, 석유개발 진출대상국의 제한이 없게되어 해외석유개발 투자가 보다 더 자유롭게 되었다.

석유개발을 위한 금융지원 부문은 당시 일본·서독 등 선진국에서 석유의 탐사사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성공불용자지원제도(Success Repayable Loan System)를 1984년부터 도입하게 되었다.

성공불용자제도는 용자대상사업이 실패할 경우에는 용자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고, 성공할 경우에는 용자원리금의 상환 외에 일정비율의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용자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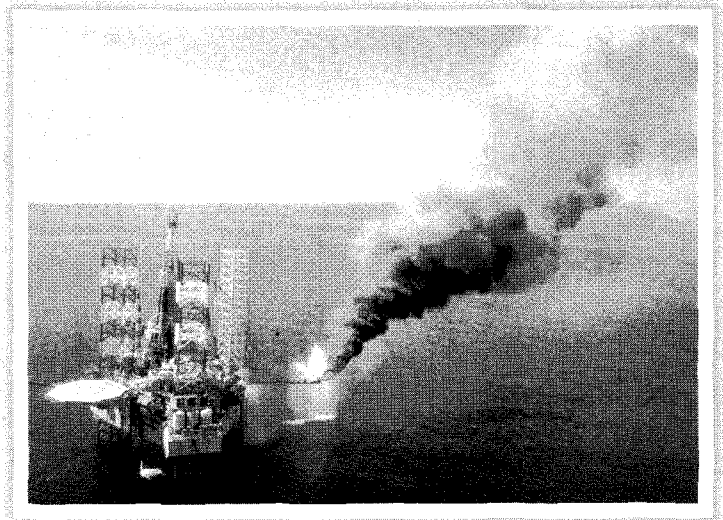



'95년부터 석유개발사업 참여가 서서히 증가됨에 따라 '96년초 석유개발사업 용자제도를 개정하여 석유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탐사·개발, 생산유전 참여사업의 용자비율을 공히 10%씩 상향조정하고, 탐사사업에서는 의무탐사규정, 광구이권 취득비, 서명보너스 등 용자대상사업비 제한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한편, 탐사기간 중 시추에 성공하여 시험생산을 하더라도 상업적 생산에도달하지 못할 경우 동일 광구 내에서 매장량 확보를 위한 탐사작업을 용자대상사업비에 포함시키고 개발사업 역시 지분제한을 없애고, 개발단계에 있는 유전의 취득 및 지분매입비 등이 개발사업비에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등 석유개발업계에 대한 용자지원을 폭넓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2001년도 용자 지원예산은 국내대륙붕 310억원, 해외석유개발

997억원 등 총1,307억원이고 사전조사사업 등에 대한 보조 예산은 3.8억원으로써 해외석유개발 정보조사 자료수집을 지원함은 물론 투융자지원예산을 전년대비 16.6% 증액하여 유전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가스를 망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중장기비전을 제시하고 기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1년 2월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동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01년 3월 '석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을 개정, 고시하여 예특회



계로부터의 융자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성공불용자에 따르는 특별부담금을 대폭 경감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석유개발자금 융자기준

대상사업	대상사업비	융자기간	융자비율	이자율
탐사사업	○ 석유광구에서 석유부존의 확인을 위한 물리탐사 및 탐사·평가시추비 등의 사업비	15년 이내(거치기간 포함) ※거치기간은 상업적생산이 개시되어 사업수익금을 최초로 받는 날의 직전일까지로 함	○ 탐사사업비의 70~80% 이내 ○ 석유정제업자는 10% 우대지원(석유공사100%)	융자 및 대출 : 연리 5.25%
개발사업	○ 석유부존 확인광구 또는 개발단계 유전의 광권 취득비 및 지분매입비와 생산시설·부대시설 건설비 등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 개발사업비의 60% 이내 ○ 석유정제업자는 10% 우대지원(석유공사100% 이내)	융자 : 연리4.25% (석유공사 직접 사용분은 연리 5.25%) 대출 : 연리5.25%
생산유전 참여사업	○ 상업적 생산단계에 있는 유전의 지분 매입비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 생산유전 참여 사업비의 60% 이내 ○ 석유정제업자는 10% 우대지원(석유공사100% 이내)	융자 : 연리4.25% (석유공사 직접 사용분은 연리 5.25%) 대출 : 연리5.25%
생산유전 운영사업	○ 생산유전의 운영을 위하여 실시하는 생산설비 건설 및 추가매장량 확보를 위한 시추 등의 사업비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 석유공사의 생산 유전운영 사업비 중 부족액의 100% 이내	융자 및 대출 : 연리5.25%

* 융자비율의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사업법상의 석유정제업자 임.
* 생산유전 운영사업에 대한 지원은 당해 연도말 예산잔액의 범위내에서 지원